

# 문장의 복합명사와 명사구의 유사정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imilarity of Compound Nouns and Noun Phrases in Sentences

이태영, 전북대학교 문현정보학과

Tae Young Le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문장간의 유사정도와 명사 구나 복합어간에서 유사한 그룹을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명사 어구는 형태소의 대체나 생략 등으로, 문장은 절간의 전체적 일치와 부분적 일치로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유사도가 50% 이상되는 경우들에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 1. 서 론

논문을 읽고 중요한 문장들을 추려내어 초록을 만들 때에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 유사한 문장들을 통합정리하는 과정이 대두하게 된다. 초록자가 발췌된 두 개의 문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들의 경우일 것이다. 첫째, 어순에 관계없이 두 문장의 단어들(체언, 용언 등)이 전부 동일할 경우이다. 둘째, 단어나 구들의 일부가 다르더라도 그 단어나 구들이 ①이음동의어 관계에 있을 때, ②“감독이회택, 이회택감독”과 같이 복합어의 위치가 전도된 경우, ③“간다, 갈 것이다. 가게 된다 등”과 같이 주절의 용언의 어미부분만이 다를 경우, ④“철학속의 수학, 수학속의 철학”과 같이 관형하는 위치가 바뀌더라도 의미가 유사할 때이다. 셋째, 체언의 조사(“XX가 YY를 ZZ한, XX가 YY에 ZZ한”)나 부절의 용언어미(“XX가 ZZ며, XX가 ZZ여”)가 다르더라도 의미상으로 보아 크게 어긋나지 않을 때이다. 넷째, “XX가 YY를 ZZ한, XX가 ZZ한”과 같이 문장을 이루는 주어, 목적어, 보어들 중에서 한

구성소가 생략되어도 상호 문장간에 의미상으로 결격되지 않을 때이다(또는 문장을 이루는 명사, 대명사, 부사, 조사, 관형사, 감탄사 등에서 한 두 개의 품사가 생략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유사한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의미일치에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첫째와 둘째의 ①,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째(③, ④), 셋째, 넷째 예는 범례를 마련하거나 준거적인 규칙을 세워 놓아야 초록자가 그것을 참고하여 일관성 있는 초록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자동초록에서도 이러한 범례와 준거규칙은 필수적인 작성요소로 작용한다. 범례와 준거규칙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경우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품사 또는 문장 성분)이 실제 문장들에서 어느 정도로 유사성에 기여하는가 하는 점을 해독하지 않으면 않된다. 따라서 본고는 상기한 둘째, 셋째, 넷째 사항들에서 명사 복합어와 구들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유발

하는 문장간의 유사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장간의 유사함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을 요약기록하고 각 경우에 따른 실제 문장들을 발췌하여 질문대상자(대학생 이상) 10명에게 유사정도를 물어 유사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

## 2. 유사종류의 예측

서론에서 나열한 두 문장간의 유사한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장 구성요소의 전체적 일치 :

가) 어순에 관계없이 두 문장을 이루는 단어가 전부 동일할 때(이음동의어도 동일한 단어로 인정한다.) :

예) ①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여!

②호랑이가 사냥을 한다 <->

범이 사냥을 한다

나) 어순에 관계없이 준동의 명사구와 준동의 용언구를 포함하여 두 문장의 단어가 전부 동일할 때 (이음동의어는 동일한 단어로 간주한다. 준동의 명사구와 용언구란 명사와 명사구 및 용언들의 집합에서 서로 의미가 일치한다고 인정한 각각의 명사구와 용언구를 뜻한다.

예) \*준동의 명사구\*

(1) 명사는 동일하나 조사가 다를 때 :

①동물은 도망간다 <-> 동물이 도망간다

②가슴 왼쪽을 타구에 맞아 <-> 가슴 왼쪽에 타구를 맞아

(2) 명사 구나 복합어를 이루는 최소자립형태소들이 서로 위치전도 될 때 :

①이회택감독 <-> 감독이회택

②이회택 감독 <-> 감독 이회택

(3) 명사 복합어 중 한 최소자립형태소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거나 생략될 때 :

①주식 투자가 바뀌었다 <-> 주식 투자**양상** : 투자방법이 바뀌었다

(4) '의'로 연결되는 구에서 관형위치가 바뀔 때 :

①수학의 철학 <-> 철학의 수학

(5) 명사뒤에 '적, 성, 형'이 붙을 때 :

①감수 <-> 감수성

②이성 <-> 이성적

\*준동의 용언구\*

(1) 용언의 종결형 어미나 보조어구가 변화할 때 :

①조작한다 <-> 조작하였다 <-> 조작할 수 있다 <-> 조작하게 만들었다

(2) 용언의 연결형 어미가 변화할 때 :

①조작하여 <-> 조작한 후

②조작하면 <-> 조작하니(까)

③맞아(서) <-> 맞어(서)

(3) 반대 용언일 때

①주가를 높였다 <-> 주가를 낮추었다

2) 문장 구성요소의 부분적 일치 :

가) 절간의 전체적 일치(단일문 포함) :

(1) 주절과 주절의 전체적 일치 :

1)의 가), 나)와 같다.

(2) 주절과 부절의 전체적 일치 :

1)의 가), 나)와 같다.

나) 절간의 부분적 일치(단일문 포함) :

(1) 주절과 주절의 부분적 일치 :

(가) 사용된 단어는 같으나 문장의 구성성분비 중 일부 성분이 생략되었을 때(문장을 이루는 성분인 주어, 목적어(간접, 직접), 보어, 술어, 부사어 등에서 임의의 성분이 생략되었을 경우이다.)

①삼성은 자동차산업을 대우에게 양도하였다 <-> 삼성은 자동차산업이 양도되었다

(나) 문장의 구성성분비는 일치하나 사용된 단어가 일부 다를 때 :

①개가 차도로 온다 <-> 개가 차도로 간다

②철수는 떡을 헌미에게 주었다 <-> 철

- 수는 감자를 현미의 집에 가져 갔다  
 (다) 문장의 구성성분과 사용된 단어가 각각 부분적으로 일치할 때 :  
 ① 차길진 팬이에요 <-> 차길진이란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② 가을에는 편지를 써 보내자 <-> 편지 갈피에 가을 낙엽 한장을 넣자  
 (2) 주절과 부절의 부분적 일치 :  
 2)-나)-(1)의 (가), (나), (다)에 준한다.

### 3. 유사정도의 조사

앞절에서 예측한 유사경우들이 실제 문장에서 일으키는 유사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예들의 질문을 담은 설문지를 만들어 10명의 대상자들에게 그 유사정도에 대한 판정을 맡겼다. 문장간의 전체적 일치 중 가)와 나)의 (1), (2)는 유사수준이 100%였으나 나)의 (3), (4), (5)와 부분적 일치는 어구와 절 및 문장의 실제 예에 따라 유사수준에 차이가 있다. 유사정도는 100%, 75%, 50%, 25%, 0%의 5단계로 나누었는데 50%를 유사함의 기점으로 삼았다. 그 내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는 생략함)

- 1) 명사 복합어 중 형태소가 대체되거나 생략되는 경우 :  
 ① 보험을 들다 : 생명보험을 들다(50) ② 생명보험을 들다 : 화재보험을 들다(25) ③ 주식투자 : 채권투자(50) ④ 주식투자 : 부동산 투자(0) ⑤ 주식시장 : 주식상장(25) ⑥ 투자가 바뀌었다 : 투자양상이 바뀌었다(75) ⑦ 투자양상이 바뀌었다 : 투자정책이 바뀌었다(50) ⑧ 정치자금 : 정치입문(0)  
 2) '의' 연결구의 관형위치가 도치되는 경우 :  
 ① 수학속의 철학 : 철학속의 수학(50) ② 아들의 아버지 : 아버지의 아들(50) ③ 자연의 이치 : 이치의 자연(0) ④ 인연의 실 : 실의 인연(0)  
 3) '적, 성' 등이 부가되는 경우

- ① 이성으로 대처한다 : 이성적으로 대처한다(75) ② 그 싸움에는 감정이 컸다 : 그 싸움에는 감정적이(감정적 영향이) 컸다(75) ③ 정치가 강하다 : 정치성이 강하다 (25) ④ 저항이 강하다 : 저항성이 강하다(75) ⑤ 저항을 주장하다 : 저항성을 주장하다(50)  
 4) 주절과 주절의 전체적 일치 :  
 ⑥ 이 연구회에는 각계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  
 ⑦ 이 연구회에는 70, 80년대 민주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⑧ 70, 80년대 학생운동을 하고 90년대 정계에 진출하여 활약한 인사들이 이 모임에 관여하고 있다.  
 ⑨ 70, 80년대 학생운동을 하였으며 90년대에 정계에 진출한 후 녹색운동에 열중하였던 인물들이 이 모임에 관련되어 있다.  
 ⑩ ①② : ⑥(25) ②③ : ⑦(25) ③④ : ⑧(25) ④⑤ : ⑨(50) ⑤⑥ : ⑩(50) ⑥⑦ : ⑪(75)  
 5) 주절과 부절의 전체적 일치 :  
 ⑫ 재외동포 자녀들과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 및 문화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한국학 여름학교」가 우리 대학교 언어교육원에 개설되었다.  
 ⑬ 우리 대학교 언어교육원에 「한국학 여름학교」가 개설되어 재미동포 2세들에게 한국인의 혼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의 문화와 역사 및 전통 등을 소개하고 있다.  
 ⑭ 우리 대학교 언어교육원에 「한국학 여름학교」가 개설되어 재미동포 2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 및 전통 등을 소개하고 있다.  
 ⑮ ①② : ⑬(50) ②③ : ⑭(50) ③④ : ⑮(75)  
 6)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되 한 문장에서는 구성성분비 중 일부 성분이 생략된 경우:  
 ⑯ 해태 좌타자 양준혁과 현대 우완 정통파 투수 위재영이 전격 트레이드된다.

⑥ 해태쪽 의사를 확인한 현대는 당초 양준혁과 위재영의 1:1 맞트레이드을 제안했으나 ('트레이드된다') 해태의 투수 한명 추가 요구를 받아들여 카드를 수점했다.

⑦ 해태 (정사장도 18일 오후엔) 양준혁 트레이드에 긍정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이드된다')

① ② : ⑥(75) ② ③ : ⑦(50) ③ ④ : ⑦(25)

7) 문장의 구성성분비는 일치하나 사용된 단어가 일부 다른 경우

⑧ 여권의 '인재 예비군' 역할을 하게 될 외곽 단체로는 우선 '국민정치연구회'(이사장 이재정성공회대총장)가 거론된다.

⑨ (올 4월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 주도로 결성된) '21세기를 이끄어가는 청년모임'도 일종의 여권 외곽단체로 볼 수 있다.

⑩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완상 전통일원부 총리와 김상근 목사 등이 주축이 되 만든) 'DJ개혁 지원그룹'인 '민주개혁국민연합'도 언제든지 여권의 수혈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다.

① ② : ⑩(50) ② ③ : ⑪(50) ③ ④ : ⑪(50)

8) 문장의 구성성분과 사용된 단어가 각각 부분적으로 일치할 때

① 각종 작품에 음악을 들려 줌으로써 병충해를 줄이고 결실을 높이는 '그린음악농법'이 대중화하고 있다.

② 2~3년 사이 보급이 늘면서 이 농법의 효과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③ 비닐하우스 안에 음향시스템을 설치하고 물 흐르는 소리, 개구리울음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동요를 바탕으로 제작한 경쾌하고 기분 좋은 음악을 들려줘 병충해를 줄이고 결실을 높이는 방법이다.

④ 길 가다가 새빨간 낙엽 한 장을 주워 본다  
⑤ 가을에는 빠일간우체통이 눈에 잘 뛴다

⑥ 가을, 너무 깊어진 가을에는 멀리 있는 그리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

① ② : ⑥(25) ② ③ : ⑦(75) ③ ④ : ⑦(25)

④ ⑤ : ⑧(0) ⑤ ⑥ : ⑨(0) ⑥ ⑦ : ⑨(25)

#### 4. 결 론

유사수준의 측정결과, 명사복합어 중 형태소가 대체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는 "보험, 생명보험"과 같이 두 단어가 상하게 총을 이루거나 "투자, 투자양상"과 같이 '투자' 주제어에 '양식' 같은 형식형 단어가 붙을 때는 준동의를 이룬다. '의'로 연결된 명사구도 "수학의 철학"처럼 동일 속성을 가진 것이 연결될 때에 도치가 가능하며 '적'이 붙는 명사는 문법적으로 말이 성립되면 준동의를 이룬다.

절간의 전체적 일치에서는 상호 절 2개 이상이 일치하면 두 문장이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단어는 같으나 구성성분비의 일부가 빠진 경우는 성분비에서 반 이상의 성분이 부합되면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비는 일치하나 사용된 단어가 일부 다를 때에는 2/3 이상의 단어가 서로 부합되어야 유사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각각 성분과 단어가 부분적으로 일치할 때 문장간의 유사함을 찾기는 힘들어지지만 앞장의 8)-①②③)처럼 중심주제가 잡혀 있을 경우, 요약되어질 수 있는 글 줄기로 보아야 한다.

#### 참고 문헌

권혜진, 「범주문법과 논리구조에 기반한 자연어 질의의 의미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나리, 「패턴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구문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남기심 &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7.

이현아, 「구문분석과 공기정보를 이용한 개념기반 명사구 색인방법」,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1995.